

사이타마 교구민 여러분에게

사이타마교구 선교, 복음화의 해 시작

— 모든 신자가 선교사입니다 —

【교회의 사명】

「전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전하여라. 나의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본주교회의는, 「복음선교 추진 전국회의」(NICE)를 1987년에 개최하였습니다. 「열린 교회 만들기」를 과제로 삼고, 「듣기, 채택, 활용」이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 필요성에 응답하는 것, 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이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이들, 불안과 고독에 힘들어 하는 이들의 쉼터, 평화로움, 격려가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에 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누구든, 사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교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왜 신자가 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신의 말로써 전하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고, 육성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도의 복음선교】

모든 신도는 복음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 각자의 소명에 상응하는 선교를 하여야 합니다.

신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각 성당에서, 신도 분들이 입문강좌, 신앙강좌, 혹은 교회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양성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목자, 즉 교회의 담당사제 혹은 협력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리와 성서, 전례등 더욱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각 성당에서 그에 상응하는 공부반을 운영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성당의 규모, 사제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기에, 교구 차원에서, 혹은 각 현 차원에서 강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어려움】

여기서 함께 생각하였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라는 것이, 일본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로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가르침을 잘 모르겠다며 비판을 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떠한 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는지, 어떤 점이 이해되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소박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찌 됩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왜 악이란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본대지진은 여러 종교인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의 장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살았던 가톨릭 신자인 소녀 엘레나의 질문입니다. 「일본에 사는 어린이들은, 왜 그런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나요? 교황님, 하느님께 물어봐주세요」 라는 질문에, 교황 베네딕토 16 세께서는 성의껏 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앙체험고백」 이란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더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생활하고 있는지, 입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음화위원회】

이러한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부족과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복음화위원회」 를 설치하고, 위의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신도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도 여러분도 이 위원회에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년 1 월 30 일

사이타마 교구 관리자
대주교 오카다 타케오